

해운-철강산업 동반발전 승선 세미나 개최 선화주 협력을 위해 상호신뢰 관계 구축 중요



한국선주협회(회장 이종철)와 한국철강협회(회장 정준양)는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위동항은 뉴골든브릿지호 선상에서 해운-철강 동반발전 세미나를 열고 양산업의 향후 전망과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한국철강협회 오일환 부회장과 한국선주협회 김영무 전무 등 양 산업계 임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황진희 해운정책연구실장이 “해운-철강산업 상생 발전방안”을, 포스코 경영연구소 공문기 박사가 “최근 철강산업 동향 및 전망”을, SK해운 리서치팀 나명운 차장이 “부정기선 시황동향 및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황진희 실장은 “해운-철강산업 상생 발전방안”

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화주들이 국적선사 이용 시 안정적인 수송망을 구축할 수 있으며 화주-선사-조선소의 협력을 통해 경기부양 효과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선화주간 신뢰 관계 구축을 바탕으로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실장은 또 일본은 커미션캐리어모델로, 중국은 국유국운(國油國運) 계획으로 선화주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선화주간 협력관계가 낮은 편이라며, 선화주 협력은 기업의 장기발전을 위한 필수과제인 만큼, 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실장은 선화주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선사의 서비스 능력 및 품질강화 △장기운송계약 확대

△원자재 도입시 무역조건을 FOB 등으로 전환 △항만 등 물류시설 공동투자 △선화주 합작선사 설립 △해의 자원개발 공동 진출 등을 제안했다.

이어 포스코 경영연구소 공문기 박사는 “최근 철강산업 동향 및 전망”을 통해 금년 2분기 이후 세계 철강수요 둔화로 철강경기가 약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원료 스팟가격은 수급 타이트 지속으로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 박사는 또 오는 2012년 세계철강수요는 선진국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철강수요 지속으로 5.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원료수요는 향후 2-3년간은 연평균 7-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원료가격은 2012년 소폭 조정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와 같이 고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SK해운 리서치팀 나명운 차장은 “부정기전 시황 동향 및 전망”을 통해 2013년까지 선박해체는 증가하는 반면, 선박 인도량은 감소하는 등 2013년 이후 선박공급은 연평균 4%대로 안정세를 보일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화물수요는 철강, 석탄, 곡물분야에서 3-5%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는 등 해운시황은 2013년 이후 안정적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해운 및 철강산업 임직원들은 향후에도 금번과 같이 양산업 종사자들이 스킨십을 강화할 수 있는 자리를 양협회가 만들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이에 한국선주협회와 한국철강협회는 내년 사업계획에 양 산업의 동반발전 사업을 검토하여 반영할 계획이다.

금번 세미나에는 해운업계에서 한국선주협회를 비롯하여 한진해운, 현대상선, STX팬오션, SK해운, 고려해운, 장금상선, 범주해운, 흥아해운, 대보해운, 태영상선, 국양해운, 조강해운, (주)한진, DKS&D, 해광상선, (주)동방, 일신해운, 시즌스해운, 글로비스, 광양선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철강업계에서는 한국철강협회를 비롯하여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동부제철, 현대하이스코 임직원이 참석했다.

선주협회 '사랑의 쌀' 선물 전달

한국선주협회(회장 이종철)는 9월 9일 추석 명절을 맞아 서울 동대문 지역 소외계층 100가구에 20kg 쌀 100포대와 라면 100박스를 전달했다. 이날 한국선주협회 임직원을 비롯, 장광근 의원(한나라당), 동대문구의원 등 20여명이 동대문구를 방문해 직접 쌀을 전달했다.

한국선주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선주협회는 지난 설 명절에도 '바다사랑 쌀' 나눔 행사로 인천 동구와 서울 동대문구 지역 소외계층에 쌀과 라면을 기부했다.





한국선주협회, 2011년도 선화주 워크숍 개최 중국물류시장 현황 및 제조업, 해운업, 물류업 협력현황 발표

한국선주협회(회장 이종철)와 한국무역협회(회장 사공일)는 선화주간 협력증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1년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간 중국 상해에서 선화주 워크숍을 공동 개최했다.

한진해운, 현대상선, SK해운, 장금상선, 천경해운, 넥센타이어, 삼성전자로지텍, 현대중공업, 범한판토스, 웅진케미칼 등 주요 선사 및 화주 2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전 한진해운 부사장인 박노언 NOI Consulting 사장이 「중국선화주 협력 사례 및 물류현황」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박노언 사장은 중국의 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설명을 시작으로 중국의 제조업, 물류업, 해운업 협력 현황을 소개하며 중국정부가 「물류업 조정 및 진흥계획」에 따라 제조

업과 물류업의 연계발전을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국기업의 대 중국 사업시 유의사항을 끝으로 발표를 마쳤다. 이어 선화주 상생 협력 방안 및 해운시장 동향에 대한 의견교환을 비롯, 선화주간 상호 관심사항을 논의하였다. 화주측에서는 선화주간 협력 강화를 위해 국내에서도 정기적인 모임을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또한 모임 활성화를 위해 참석범위를 포워딩 업체까지 확대할 것도 제안하였다.

한편, 선화주워크숍은 선화주간 협력관계 증진과 해운물류 정보교환을 통해 공존공영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2004년부터 한국선주협회와 한국무역협회가 정례적으로 공동 개최하고 있다.

한국선주협회, 중·소 선사 간담회 개최

한국선주협회(회장 이종철)는 지난 8월 29일 중견 선사 사장단 간담회를 갖고 해운현안과 협회 운영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태영상선 박영안 사장을 비롯하여 신성해운 박영규 사장, 중앙상선 김지영 사장, 삼목해운 이광희 사장, 천경해운 서성훈 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이종철 회장은 "우리 해운업계의 주요 당면 과제는 △대량화주의 해운업 진출문제 △금융문제의 해결 △해기사 수급개선 등 세가지로 요약된다"며, 협회는 이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이들 세가지 사안은 우리 해운업계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핵심현안이라며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선박의 제공자와 선박 Operator의 역할

을 분담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중소선사의 선박금융 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현실에서 중소선사가 직접 금융권과 선박확보 협상을 하는 것이 한계가 있는 만큼, 선박운영자와 선박제공자를 분리하여 펀드 등에서는 선박을 제공하고 이를 운영선사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종철 회장은 또 "회원사들과의 스킨십 강화와 해운업계의 정보공유를 위해 우리 해운인들이 자유롭게 만나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수 Baltic Exchange와 같은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협회가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선주협회는 회원사들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스킨십 강화를 위해 중견선사 사장단과의 회동을 정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선주협회 · BIMCO, 국제해운세미나 개최

국제해운동향과 주요국 해운정책이슈 점검



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세 가지 공통 이슈들을 지적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첫째, 계약불이행에 의한 해운업계 내 신뢰 하락 문제에 대한 언급이다. 특히 이종철 회장은 “해운업계는 지난 슈퍼사이클 후 찾아온 시황 급락 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연쇄적인 재무건전성 악화를 경험한 적이 있으며,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동성 문제는 해당 선사에게 국한되지 않고 선의의 다수 선사로 전이되어 업계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모든 계약이 존중되고 합의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준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선주협회(회장 이종철)와 발틱국제해운거래소(BIMCO, 회장 Yudishthir Khatau)는 9월8일(목) 오후 2시부터 한남동 그랜드 하얏트 서울 남산 Ⅲ룸에서 ‘국제해운이슈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국국제세미나를 공동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BIMCO Yudishthir Khatau 회장과 한국선주협회 이종철 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세계사회에서 해운의 중요성과 녹색해운’에 대해, 한국선주협회 김영무 전무가 ‘국제해운 이슈 및 한국대응전략’을 각각 발표하였다.

이어 BIMCO CEO/전무인 Torben C. Skaanild 씨가 ‘세계경제전망과 최근 주요 해운정책이슈’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선주협회 이종철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해운

또한, 한국선주협회 이종철 회장은 해운업계의 골칫덩어리인 Aden만 해적 문제도 언급하였다. 빈번하게 출몰하는 중무장 해적들로 인해 경제적인 손해가 지속됨은 물론 해상직원들의 안전 역시 크게 위협받고 있으며, 이에 선주협회는 동 해역에 파견된 한국 해군함정의 파견 연장을 적극 추진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나 이는 소수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이며, BIMCO 차원에서의 통합 공동대응이 절실히 필요한 항목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해운업계에 새롭게 대두되는 친환경 관련 사안을 언급하며, 지난 7월 IMO에서 선박 온실가스 저감규제가 채택된 데 이어, 국내외 화주들의 친환경 운송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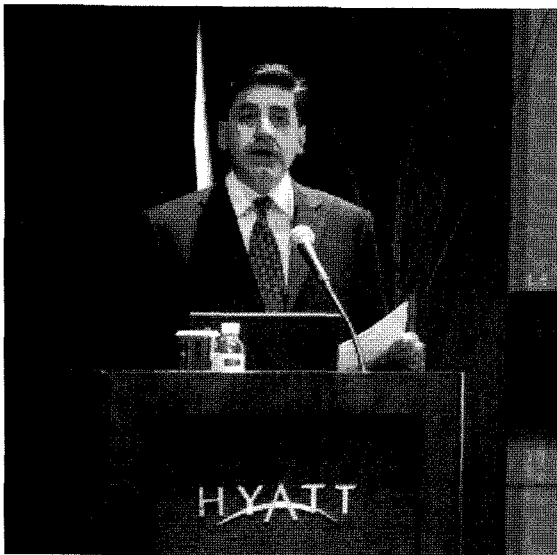
속에서 이제 친환경 해운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선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경쟁력 중 일부가 되었다고 말하였다.

BIMCO의 Yudishthir Khatau 회장은 해운업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그린쉬핑에 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Khatau 회장은 "IMO가 선박의 배기가스 배출량을 규제하기 위해 지난 7월 EEDI, SEEMP를 채택한 것은 환영할만 하다. EEDI, SEEMP는 연료효율성을 높여 배기가스를 줄이자는 것으로 선사들이 연료효율을 높이지 못하면 운항비용이 크게 늘어 결국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해운산업은 비용투자없이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캐시카우가 결코 아니라고 했다. EEDI, SEEMP를 만족하면서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만들어야 하며 이작업에 선장, 선원은 물론 감독까지 전 직원들이 참여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hatau 회장에 이어 한국선주협회 김영무 전무는 '국제해운이슈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EEDI, SEEMP의 도입과정과 이것이 해운업계의 미칠 영향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선주협회 김영무 전무는 "그린쉬핑과 관련된 회의를 열면 대형 몇개 선사만 관심을 갖고 대부분의 회원사들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지만, 경쟁력을 갖고 해



운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국적선사들도 그린쉬핑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박배기가스 규제 강제화와 함께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시장기반조치(MBM) 방법에 대해 김영무 전무는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차이가 갈리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도 아직 입장이 확실하게 정리되지 못했다. 다만 우리는 선진국에 좀 더 가까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EEDI, SEEMP, MBM에 대해 선진국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개도국에서는 즉각적인 도입보다는 일정기간 유예가 필요하다고 땡땡하게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MBM에 대해서도 국가간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다고 말하며 한국을 비롯한 덴마크, 그리스, 사이프러스 등 해운국들은 온실가스기금(GHG Fund)을 지지하는데 반해 노르웨이,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 선진국들은 배출권거래제를 선호하고 있고 일본은 효율보상제를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무 전무는 MBM에 대해 "우리는 지난해 2차례 연구용역을 거쳐 온실가스기금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온실가스기금은 연료유에 대해 톤당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단순하고 투명하며 미래

예측성이 가능해 유용하게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배출권거래제는 투기적화 가능성이 있고 운용이 복잡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선주협회와 BIMCO는 국제해운이슈에 대한 공동대응과 정보교환 등에서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으며, 매년 한국에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외항해운업체를 비롯하여, 해운중개업체, 선박관리업체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동 세미나는 한-영

동시통역으로 진행되었다.

BIMCO는 해운업계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모임으로 이루어진 최대 규모의 민간국제해운단체로서 회원들의 선박보유량은 세계상선대의 65%인 6억1,000만톤(DWT)에 달하고 있다. 123개국의 선주, 선박중개인, 대리인 및 기타 해운업 관련업체 또는 해운업 이해관계업체 등 약 2,600개 회원으로 구성되었다.

한국선주협회, 보험·법제 실무협의회 개최 이란 국제사회 제재조치 및 대응방안 협의

한국선주협회(회장 이종철)가 미국의 이란 제재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한국선주협회는 9월 6일 선주협회 대회의실에서 실무부서장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보험·법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백창우 현대상선 차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미국과 EU는 이란의 유류 생산 및 정유 산업을 원조하는 화물서비스, 해운·은행 및 보험 등과 같이 교역을 원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있다"며 "제재대상 업체들에 대해서는 P&I 보험이 커버가 되지 않을 수 있고, 선체보험 및 기기보험 등도 제한·중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연합은 최근 이란의 핵시설 관련 일체의 지원 금지,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촉구, 이란의 우라늄농축 금지, 제재 대상자에 대한 자금동결 등에 관한 일련의 내용을 담은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발표하는 등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또 미국은 지난 2010년 7월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이란에 대한 포괄적 제재(CISADA)을 발효

시켰다. CISADA는 과거 미국의 이란 대상 제재조치와 달리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해 광범위한 역외적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석유정제제품을 이란으로 운송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란 내 정제시설의 건조, 현대화 또는 수리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운송할 수 없으며 미국인 또는 미국회사의 자산을 이란으로 운송할 수 없다. 제재 물품을 운송하게 되면 보험자는 보험 담보를 거부할 수 있다.

유럽연합은 미국에 비해 이란에 대한 제재가 소극적이었으나 2010년 미국이 CISADA를 발효한 이후 EU차원의 대이란 추가제재 결의안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험·법제 실무협의회는 관계 업무 담당자간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해 두 달에 한번 정례적으로 개최되며 국적선사 보험법무팀장 또는 동 업무 담당자들로 구성된다.

이번에 개최된 제 2차 보험·법제 실무협의회에는 델타마린 김달호 이사를 비롯해 동진상선 정준석 이사, 장금상선의 이승현 부장, 대보인터내셔널 쉬핑 문홍일 부장 등이 참석했다.



국토해양부, ‘깨끗한 바다, 함께 만들어요’ 2011년 ‘국제연안정화의 날’ 행사 전국 70여 곳에서 열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011년 국제연안정화(ICC; International Coastal Cleanup)의 날’ 행사를 전국 70여 곳에서 개최하였다.

전국에서 55개 시민단체 및 기관의 자원봉사자 7,0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는 지역 실정에 맞게 9월 24일에 개최되었고,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조선, (사)한국해양구조단, 수협중앙회, 자원순환사회연대, 해양경찰청이 공동주최했다.

행사 참가자는 해안과 수중에서 바다 쓰레기를 단순히 수거하는 것만이 아니라 수거한 쓰레기의 종류, 성상, 무게 등을 조사카드에 기록한다.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해양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조사카드를 작성하면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실천방법을 생각한다.

‘국제연안정화의 날’ 행사는 1986년 미국의 민간단체인 해양보전센터(Ocean Conservancy: Center for Marine Conservation의 후신) 주최로 시작되었다. 텍사스주 중심의 행사에서 매년 약 100여 개 국가, 50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국제행사

로 발전하였다.

연안정화의 날 행사는 개인과 시민단체, 기업과 공공기관, 정부, 세계인의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의 장인 동시에 동반자 정신을 형성할 수 있는 공감의 장이다. 우리나라는 민간단체 주도로 2001년부터 연안정화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는데 지난 10년간 402곳에서 36,295명이 참가하여 1,148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행사 참가자들이 수거한 쓰레기를 종류별로 보면 담배·담배필터(18%), 각종 봉투(8.6%), 플라스틱 음료수병(8.6%), 부표(7.0%), 각종 병뚜껑(6.9%) 순으로 많았다. 이 다섯 가지 종류의 쓰레기가 전체의 50%를 차지하였다.

각종 병뚜껑, 음료수캔, 음료수병(플라스틱, 유리 재질), 음식물 포장지(포장용기)는 재활용할 수 있으므로 육상에서 분리 배출하기만 해도 그 양을 상당부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해양쓰레기의 70%는 육상폐기물이 하천과 강을 통해 해양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시아·아프리카 11개국에 해양조사기술 전수

국립해양조사원(원장 임주빈)은 10월 5일부터 20일까지 국제수로기구(IHO) 회원국 중 아시아, 아프리카 11개국 공무원 19명을 초청하여 “해양조사기술” 연수를 실시한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후원으로 마련된 이번 연수는 전자해도와 항해안전, 항공라이다 측량, 해양재해 대응 등 최신 해양조사기술 소개와 멀티빔, 수심수온염분기록계, 위성뜰개 등 첨단 관측장비 운용에 대한 교육과 현장실습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2,500톤급 해양조사선인 “해양2000호”에 승선해 장비운용 실습과 함께 현대중공업, 부산신항 등을 방문하는 산업시찰도 실시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한국의 가정 문화를 접할 수 있는 홈비iting, 연수생들간의 연수 과정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시간, 친선을 위한 국제친선의 밤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해양조사원 관계자는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연수가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연수기간 중 참가자를 대상으로 동해 명칭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0년도 무역항 부두운영회사 최초 성과평가 성과평가 결과 우수기업 6개사에게 인센티브 부여



국토해양부는 1997년부터 도입된 부두운영회사(TOC, Terminal Operating Company)를 대상으로 항만운영 분야에 자발적인 혁신과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작년 7월에 「부두운영회사 성과평가 업무지침」을 제정하여 부두운영회사 성과평가제도를 마련했다.

이번 성과평가는 36개 부두운영회사로부터 2010년도(1년간)의 평가자료를 제출받아 물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전국 9개 무역항, 32개 부두(113선석)를 임대받아 운영하는 36개 부두운영회사를 대상으로 최초로 2010년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우수기업 6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업 6개사는 선광(군산항), 고려항만(울산항), 8부두운영(인천항), 신흥사(울산항), 인터지스(부산항), 대한통운(군산항)이며, 1등급(1개사), 2등급(2개사), 3등급(3개사)에 따라 각각 임대료 10%(최대 5,000만원), 7%(최대 3,000만원), 4%(최대 1,000만원)를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성과평가 결과가 저조한 하위그룹 5개사는 3년 연속 하위그룹에 포함되는 경우, 2년간 재기기간을 부여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임대계약 해지 및 재입찰 등의 패널티를 받게 된다.

동량 유치노력 등 6개 평가지표와 8개 세부평가지표에 따라 성과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면평가, 현장실사 등을 거쳐 종합평가를 실시하였다.

2010년도 부두운영 성과평가 결과는 경제위기가 극복되지 않은 전년도와 비교한 최초 평가로 대상기간이 짧아 정확한 비교·분석이 어려웠으나,

평가지표의 배점 조정, 선석별 통합운영에 대한 가중치를 신설하는 등 업무지침을 보완·발전시켜 2011년도 부두운영회사 성과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금번 부두운영회사 성과평가 실시를 계기로 항만의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부두운영회사들의 자발적인 혁신과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우리말 해저지명』국제등재로 해양영토 주권 강화 동해와 남극내 우리말 해저지명 추가 등재

국립해양조사원(원장 임주빈)은 중국 베이징에서 9월 12일부터 16일까지 4박 5일간 개최되었던 제 24차 해저지명소위원회(SCUFN)에서 우리말 해저지명 4건을 국제지명집에 등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등재된 해저지명은 동해시 인근해역인 동해 해저협곡, 강릉시 인근해역인 강릉 해저협곡과 장보고 남극과학기지 건설지역인 동남극 Terra Nova Bay 일대 궁과 해저구릉군, 쌍둥이 해저구릉군이며 남극의 경우 우리말로 된 해저지명 등재는 최초이다.

우리말로 된 해저지명의 국제등재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현철 박사가 2006년 국제 해저지명소위원회 위원으로 진출되면서 본격화되어, 2007년 최초로 울릉도 주변 해역 등 東海에 안용복 海山, 온누리 분지, 우산 해곡 등 10건의 우리말 해저지명을 국제등재 하였고 2009년에는 최초로 태평양에 장보고



海山, 아리랑 평정해산, 백두 평정해산 등 우리말로 된 해저지명을 국제등재 하는 등 지금까지 동해 등 우리나라 해역과 태평양 등지에 총 31건의 우리말 해저지명을 국제등재하고 있는 상태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해저지명이 국제등재가 되면 전세계적으로 통용되어 세계 각국은 자국어로 된 해저지명을 등재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고 밝히면서 특히, 이번에 동해지역에 추가적으로 우리말 해저지명이 국제등재되어 해양관할권과

동해 표기에 대한 우리나라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시켰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미개척 지역인 남극해역에 우리말로 된 해저지명을 등재시킴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위상 제고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탐사를 통해 우리나라 해역뿐만 아니라 전세계 해역에 우리말로 된 해저지명의 국제등재를 계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동해 표기에 대해서도 범정부적으로 적극적인 대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해저지명 우리말 지명 등재현황(2011.5월 기준)〉

년도	개수	등재지명	지역
2007	10	안용복해산, 강원대지, 후포퇴, 이규원해저용기부, 김인우 해산, 온누리분지, 새날분지, 울릉대지, 우산해저절벽, 우산해곡	동해
2008	8	죽암해저용기부, 울산해저수로, 우산해저용기부, 왕돌초	동해
		가거초, 제주해저계곡, 갈매기초, 새터퇴	남해, 서해
2009	4	장보고해산, 아리랑평정해산, 온누리평정해산, 백두평정해산	태평양
2010	9	청해진해산(서태평양), 보름달평정해산, 연평정해산, 해래 놀, 급수선 놀, 전복 놀, 올챙이 놀, 풍덩이 놀, 가락 놀	동태평양(8개) 서태평양(1개)